

1. 주일예배를 당분간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예배 지침서를 참고해주세요.
2. “말씀과 함께 하는 하루”와 “합심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3.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4. 강용구 전도사님이 해외파견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 지난 주 통계 | | | |
|--------------|---------|------------------|------|
| 부활주일 감사헌금 | CD \$80 | 1, 2, 12, 25, 26 | |
| 장년 출석 | 가정예배 | 어린이 출석 | 가정예배 |

가정예배 지침서

1. 예배 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2.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시청은 큰 기기 하나를 준비해서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각 개인이 다른 기기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온 가족 구성원이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돌아가며 말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는 기도와 예배 인도는 아버지, 대표기도는 어머니, 성경봉독은 자녀들이 맡으면 됩니다.
4. 찬양은 동영상을 참고하여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부릅니다.
5. 설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동영상 시청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합심기도는 5가지의 기도제목 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마침기도는 연장자가 하겠습니다.
7.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8. 헌금은 E-transfer로 합니다. (mahanaim0904@gmail.com) 패스워드는 (JESUS)로 해주세요.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당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부활후 첫 번째 주일 가정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여는 기도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찬양 온 땅의 주인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대표기도 말은이

누가복음 24:13-35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2)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 보되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3)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성경봉독 말은이

설 교 눈이 가리어서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동영상 참조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합심기도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며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 한 장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죽었다고 여깁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편견을 줍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훈계하듯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기 힘들 정도로 강조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잇고 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분명한 것을 확실할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그 의미마저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게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혼자 모르고 있는 듯한 예수님을 대답해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 상황과 형편을 이겨낼 모책에 대해서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답답함을 드러내고 자신이 생각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못마더워 합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해결점은 가리어진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조르기 보단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볼 제대로 된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눈이 떠졌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미 길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설명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또한 떡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며 떡을 먹는 것은 성소의 전설병을 안식일에 먹는 것처럼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을 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나의 시선이 가득 담긴 선그라스를 벗어내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십시오. 나의 욕심과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이 차려주신 상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토록 절망적으로 걸어왔던 엠마오로 가던 길이 주님과 동행했던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되며 다시는 걷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다시 걸어 그 길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